

정조의 맹자학*

- 경연과 경학의 관점에서 -

합영대**

1. 문제제기
2. 경연, 군신 권력관계의 길항
 - 1) 중국과 조선의 경연
 - 2) 영·정조대의 경연
3. 정조의 맹자학
4. 남는 문제

1. 문제제기

이 논문은 전통시대 중앙에서 진행된 경연의 정치학적 일면과 그 경서해석의 일면을 정조의 맹자학을 중심으로 고찰하려는 것이다. 폐해가 지적되던 봉당정치를 일소하고 탕평정치를 통해 18세기 조선의 중흥을 이끌었던 영조[재위(이하 동) 1724~1776]와 정조(1776~1800) 연간은 경연이 지속적이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君師를 자처한 정조는 경연을 어느 군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경연관들과 경서에 대한 강의를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규장각의 제도가 완성되고 抄啓文臣制를 확립한 이후에는 『經史講義』라는 수준

* 이 논문은 2017년 12월 1~2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열린 한국경학학회·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공동개최 국제학술대회 “경학사의 시야에서 바라본 소학류(小學類) 문헌”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높은 경의문답서를 저작하기도 했다. 경연과 경사강의가 다소 줄어든 1780년대 후반에는 경서의 주요한 大文을 초록하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개별 경전에 대한 연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¹⁾ 이를 맹자학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經筵 孟子講義(1780~85) → 抄啓文臣 經史講義 - 孟子(1781, 1783~84, 1786~87)
 → 孟子講義(抄錄本) (1796) → 鄒書敬選 (1797) → 鄒書春記(1800)

정조는 경연관들이 진행하는 경연의 성과를 저변에 두고 자신이 신진관료들을 지도하는 경사강의를 진행했으며,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요약 선본을 만들기도 하고, 최후에는 학문적 수준이 있는 신하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경학을 완성시켜나갔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는 한 수준 높은 학자의 경학공부의 여정으로도 의미심장한 것이지만 그 대상이 조선에서도 손꼽히는 호학군주였던 정조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요한다.

경연은 그 기본성격이 군신들이 경사를 논의하며 아울러 국정시사를 토론하는 장이다. 실록과 문집의 기록에 의거 경학공부가 현실상에 유의미하게 전환될 수 있는가를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조선 경연자료의 검토결과 경연에서의 경사강의와 정치시사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별개의 사안이다. 단지 경연에 참석하는 경연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경술을 구비한 문신학자들이었으므로 전제군주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수직적인 보고방식에서 전환하여 왕과 경술을 담당한 관료들 간에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국사논의의 장이 될 가능성은 늘 있었다.

그러나 군신간의 입장은 항상 동일한 처지에 있을 수 없고, 경연의 방식 또한 여러 국면이 있었다.²⁾ 그러므로 경연의 승패는 결국 경연에 임하는 군신간의 역

1) 정조 시대의 학술경향과 정조의 제왕학과 경학연구에 대해서는 정옥자, 1999 「정조시대 연구총론」,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돌베개 참조. 정조의 제왕학과 경학연구에 대해서는 김문식, 2007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참조.

2) 정조시대의 경연만 보더라도 수시로 변경되는 경연의 교과목은 차치하고도 그 진강의 형식도 여러 번 바뀌었다.

학관계와 역할 정립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황제의 절대권력이 확립된 시기의 경연은 대체로 황권을 보좌하고 그 국정성과를 선전하는 역할에 그친 반면, 臣權과 言論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정치권력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에는 경연이 좀 더 君臣共治의 유교이상을 실현하는 장으로 적극 활용되기도 했다.

조선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유학의 정치이념이 실제 정치상에서도 적극적으로 구현된 18세기의 조선은 경연에서도 여러 흥미로운 국면을 보여주었다. 특히 정조시기는 국왕과 경연관에 의한 經筵과 국왕과 초계문신들이 진행한 經史講義가 나란히 진행되어 그 향배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정조는 맹자학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두 과정에서 『맹자』라는 경전에 대한 해석적 접근의 추이를 살피는 것으로도 그의 맹자학에 대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경연의 전면모를 파악하는 데도 유효할 것이다. 해당 시기는 이완되었던 군권이 점차 강화되고 있었는데, 이 시기의 경연과 경사강의는 학술활동을 통한 왕권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 전말을 살피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경연에 대한 호름을 일별한다.

2. 경연, 군신 권력관계의 길항

경연의 기본성격은 군주에게 경의를 강론하는 제왕교육의 일환이지만 동시에 국정의 현안이나 시사를 토론하여 요순지치를 만들고자 하는 군신공동의 학술과 정치토론의 공간이기도 하다. 유교적 공론장으로서의 가능성과 유교를 국시로 하는 전근대 동아시아 국가에서 통치자와 그 관료라는 치자 집단내의 유교지식인의 정체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장이다.³⁾

3) 이원택, 2014 「유교적 공론장으로서의 경연과 유교지식인의 정체성」 『泰東古典研究』 33.

이원택은 효종대(재위 1649~1659) 조선의 山林에 의해 경연에서 『中庸』과 『心經』이 강의된 것을 군주교육에 그치지 않고, 유교적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1) 중국과 조선의 경연

宋에 이르러 확립된 경연제도는 정치공론장을 형성하여 군신공치를 실현하려는 유교정치이념을 반영한 산물이다. 정치공론장의 형성은 전제군주의 자의적인 폭력성을 제어하고 仁政의 은택을 인민에게 시혜하고자 하는 유교정치의 핵심 과정이다.⁴⁾ 북송대 경연제도는 대체로 춘강과 추강의 학기제가 있었지만 실제 강의한 일수는 3개월 정도에 불과했다. 다만 이때에는 강독관과 사관이 둘 입시하는 것은 물론 중신들도 경연에 입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황제의 육성을 직접 청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 남송대에는 대간이 경연에 참여했고, 그 경연의 참여자가 다소 증가했지만 북송대와 같은 걸출한 인물이 적었고, 실제 경연에서도 주요한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대의 학자 주희 역시 외직을 전전하며 이렇다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다만 당시에 제출된 호안국의 춘추 해석서인 『춘추호전』과 진덕수의 경연교재 『대학연의』가 이채롭게 빛날 뿐이다. 다만 북송에서 남송으로 이르는 시기 경연의 성쇠는 왕안석 신법의 좌절과 그 반동으로 정치경제 등 사회현안에 대한 관심사가 탈사회적 관심사로 전환된 결과 초래된 불가피한 것이다.⁵⁾

명대의 경연은 일강이 제도화되는 등 제도적인 정비가 있었지만 실득이 적었다. 창업기인 흥무·영락 연간의 경사강론은 유교 통치이념을 실천하는 상징적인 것에 불과했으며, 특히 그 운영에서 황제가 주도함에 따라 황제독재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수성기인 선덕연간에는 군신간의 정사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협의대상이 내각을 중심으로 한 중앙언로에 국한되어 君臣共治에 의한 황제권 견제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황제의 사적 권력은 성학교육을 통한 수양이라는 황제의 자율성에만 의존하는 형태로 제약되었다.⁶⁾

-
- 4) 중국 고대 경연제도에 대한 지적은 張帆, 1991 「中國古代經筵制度初探」 『中國史研究』; 경학사의 전개 과정에 송대 확립된 경연제도에 대한 연구는 周維錚, 2002 『經學史十講』, 復旦大學出版社; 송대 경연제도에 대해서는 朱瑞熙, 1996 『宋朝經筵制度』 『中國文化論叢』 55, 上海古籍出版社; 姜鵬, 2006 『北宋經筵與宋學的興起』, 復旦大學 博士論文; 鄒賀, 2010 『宋朝經筵制度研究』, 陝西師範大學 博士論文 참조.
- 5) 송대의 정치문화에 대해서는 余英時, 2004 『宋明理學與政治文化』, 允晨文化 참조; 북송대의 경연과 송학의 흥기에 대해서는 姜鵬, 2006 앞의 책 참조.

청대 경연은 강희제 25년 이후로는 參政의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 결과 황제의 정치를 선전하는 공능을 지닐 뿐이었고, 옹정과 건륭 이후는 경연 자체가 황제의 언론을 중시하는 전례로 고착되어 경연이 훈척신료들을 빌려 황제의 정치를 선전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이 왜곡된다.⁷⁾

이런 점에 依據해 볼 때 경연의 정치사회적 기능 내지 역할은 그것이 문치주의의 진일보한 형태이고, 그 상징적인 의미가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실상에 있어서는 좀 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송대 경연의 변화과정은 송대의 정치이상을 적극 수용하여 토착화시킨 조선에서 적지 않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원대 주자학을 수용하여 정치이념화한 신홍사대부에 의해 개국된 조선은 주지하듯 주자학을 국시로 정했다. 그 결과 법률 제도적으로는 명의 법제를 많이 참작하였으나 정치사상적으로는 주자로 대표되는 송대 사대부들의 至治主義 정치이상에 호응하였다.⁸⁾

경연에서도 그 일면은 잘 드러난다. 고려 예종(1105~1122) 때에 도입된 경연제도는 조선 세종대(1419~1449)에 이르러 집현전학사가 가담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가 확립되었다.⁹⁾ 물론 고려말에는 이미 원을 통해 이입된 성리학이 국왕 역시 통치를 위해 성인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당위에 군신간에 일정부분 합의했기 때문이다. 조선의 경연제도는 시독관, 참찬관, 강독관, 검토관으로 구분하여 경연을 진행했다. 이는 고려의 경연제도를 대부분 계승한 것으로 세종대(1418~1450)는 집현전 연관되어 각별하게 주목된다. 집현전은 전담 경연 관제가 직제로 구축되어 경연관의 중요도가 향상되었으며, 고제탐구와 제도문물의 정비 역시 경연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수행되었다. 세종은 이들을 활용하여 『자치통감강목』에 주석을 가한 『資治通鑑綱目思政殿訓義』를 내기도 했다.¹⁰⁾ 세

6) 尹貞粉, 2011 「明代 經筵制度와 政局運營의 推移: 洪武(1368~1398) ~ 弘治年間(1488~1505)을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75.

7) 陳東, 2006 『清代經筵制度研究』, 山東大學 博士論文.

8) 정조는 조선의 정치문화 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도 송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인식했다. “我東立國規度, 專倣宋朝, 而治法政謨, 亦多髣髴, 故予於宋史, 每年輒一遍看詳”(『弘齋全書』 卷161, 日得錄1 · 文學1)

9) 權延雄, 1983 「高麗時代의 經筵」, 『慶北史學』 6; 南智大, 1980 「朝鮮初期 經筵制度」, 『韓國史論』 6 참조.

종의 경연제도 구축은 이후 世祖(1455~1468)의 親講 강화로 그 의미와 역할이 축소되었으나 成宗代에 이르러 다시 그 기능을 회복하여 發展시켰다.

경연과 관련하여 성종대(1470~1494)의 특징은 弘文館을 설치하여 경연정치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울러 홍문관에 特進官이라는 제도를 신설했는데 그 맥락은 경연에서 군주의 고문에 대비하는 것을 官職이나 官品보다는 학문이나 도덕 성을 중시한 결과이다. 이 특진관 제도는 이후 재야의 명망있는 학자들을 경연에 招致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케 한 것이다. 이후 仁祖(1623~1649) · 孝宗(1649~1659) 연간에 과거를 통하지 않는 산림의 인재를 特任할 수 있었던 근거 역시 이것이었다. 그들은 世子侍講院의贊成, 眞善 등의 직책으로 經筵을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하였으며, 과거출신자와 동등하거나 또는 더 우월한 대접을 받으며 언론을 담당하는 청요직에 등용되었다. 산림 경연관의 등장은 조선의 경연이 사림의 입장을 수용하여 조선화된 주자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면이다.¹¹⁾ 그러나 정치권력의 입장은 보건대 그것은 군권에 대한 신권의 성장이라고 평가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전제군주의 독재를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조와 효종, 인조와 숙종의 군신간의 권력 조정기를 지나 왕권 강화의 흐름이 굳어지는 영조와 정조의 시기가 도래한 것은 그 형세상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16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 재위기간만 40년이 넘는 선조는 李滉(1501~1570), 奇大升(1527~1572), 李珥(1536~1584) 등 조선의 걸출한 학자들의 경연지도를 받았다. 그가 경연을 진행하면서 독서한 방법은 6년까지는 경연관이 大文과 箋注를 읽고 난 다음 선조가 읽었으며, 7년 이후부터는 대문만 읽고 전주는 생략했다. 초기 선조의 경연에 입참했던 李滉은 『대학』 6章을 강의하면서 『소학』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자주 탐독할 것을 권면했고, 또 趙光祖, 金宏弼, 鄭汝

10) 오항녕, 2003 「성리학 역사서의 형성과 구조」 『한국실학연구』 6: 노요한, 2017 「조선전기 관찬 역사서의 주해방식에 대하여: 『자치통감사정전훈의』를 중심으로」 『규장각』 50: 노요한, 2017 「조선전기 관찬 역사서의 주해방식에 대하여 2: 『자치통감강독사정전훈의』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129 참조.

11) 權延雄, 1981 「成宗代의 經筵」 『韓國文化의 諸問題』, 국제문화재단; 鄭在薰, 2012 「경연 · 서연과 조선의 군주학」 『伏賢史林』 30 참조.

昌 등의 儒賢에 대한 追贈을 건의했으며, 夕講에서는 黃幹의 『儀禮經傳通解』의 간행을 奏請하기도 했다. 이렇게 경연의 장을 통해 군주의 학업을 권장하는 한편, 선현의 추송과 도서의 간행 등을 자연스럽게 請할 수 있는 것은 君臣의 관계와 수준이 합당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李滉의 이런 건의는 부분적으로 수용되어 선조는 이후 柳希春을 통해 趙光祖, 金宏弼, 鄭汝昌 등의 文集이 반영된 『國朝儒先錄』을 간행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경연에 입참한 盧守慎은 경연에서 經文을 읽는 데만集中할 것이 아니라 對話와 議論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등 경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러한 경연에 대한 군신들이 관심은 壬辰倭亂의 避亂中인 1594년에도 피난지에서 『주역』을 읽으며, 전쟁 중의 政事에 관해 논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鄭澈의 관직추탈이나 李舜臣과 元均의 처리문제도 이 때 논의된 것이다.¹²⁾ 이후 仁祖(1623~1649)와 孝宗(1649~1659)대에서 肅宗(1674~1724) 때의 산림경연관의 활약과 경연에서 『심경』을 진강한 것은 군주에게 心의 수양을 강조했다. 이는 일면으로는 군신간의 벽을 넘어선 소통을 추구한 시도이지만 군신관계의 측면에서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피할 수 있는 절묘한 타협을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이 조선전기 경연의 구체적인 국면은 그 기록적인 측면과 함께 좀 더 섬세한 고찰을 요한다. 조선은 태조 원년에 문무백관의 제도를 정할 때부터 이미 『經國大典』에 ‘經筵’을 독립기구로 편성하여 군주에게 경사를 강독하고 평론과 사려하는 임무를 맡으며 필요한 관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¹³⁾ 그런데 『경국대전』의 경연관 규정을 보면 承旨들이 副提學과 함께 參贊官을 겸하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注書도 들어가서 그 내용을 記錄하였고, 그 내용이 『承政院日記』에 기록되었다.¹⁴⁾

12) 金重權, 2013 「朝鮮朝 經筵에서의 宣祖의 讀書歷 考察」 『書誌學研究』 55 참조.

13) 『太祖實錄』元年 7月 丁未 “經筵官：皆兼，掌進講經史，領事，一，侍中已上；知事二，正二品；同知事二，從二品；參贊官五，正三品；講讀官四，從三品；檢討官二，正四品；副檢討官，正五品；書吏，七品去官，世子官屬：皆兼，掌講學侍衛等事，左右師各一，正二品；左右賓客各一，從二品；左右輔德各一，從三品；左右弼善各一，正四品；左右文學各一，正五品；左右司經各一，正六品；左右正字各一，正七品；左右侍直各一，正八品；書吏四，八品去官。”

이러한 경연관 제도는 조선 전기의 堂上官 중심의 경연에서 세종대의 집현전 학자들에 의한 경연의 전담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집현전 학사들이 세조의 정권 탈취에 협조하지 않아 집현전이 폐지되었는데 성종대의 弘文館으로 부활했다. 성종대 후반에는 特進官 제도가 발달하여 당상관이 담당하던 경연이 재야의 덕망있는 선비로 전환되었다. 이 관습이 이어져 조선후기에는 재야의 선비, 곤 山林을 초빙하는 것이 하나의 풍조를 이루었는데 그들을 초빙하기 위한 賛善 등의 직책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후 산림 경연관은 학술뿐만 아니라 정국에도 깊이 관여하는데 宋時烈, 宋浚吉이나 爾拓基, 宋明欽 등은 政局의 換局을 주도하는 매우 영향력이 큰 산림 경연관이었다. 이것이 정조대에 이르러 다시 규장각 관원이 경연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¹⁴⁾ 세종대의 집현전 학사들이 전담한 경연의 전통이 되살아난 것이다. 다만 정조대의 경연이 세종대와 변별되는 점은 군주의 학술적 방향과 정치적 지향이 더욱 강하게 투영되었다는 점이다.

2) 영 · 정조대의 경연

18세기 영조와 정조의 경연과 경의문답에서 특징적인 것은 군주의 적극적인 경연의 시행과 경의문답의 저작이다. 영조는 집권의 시기별로 경연과목을 조정하여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응하면서 왕권중심의 왕도정치로 전환하는 데 경연을 활용했다. 경연의 교재로 채택한 『陸宣公奏議』나 『周禮』, 『聖學輯要』 등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특히 영조의 경연과목 변천에는 경연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군신간, 또는 봉당 간의 갈등은 경연이 단순히 학술장의 영역이 아니라 예민한 정치적 고려의 산물임을 확인시켜준다. 영조의 즉위와 동시에 조선의 정국은 少論에서 老論으로 전환되고 그에 따라 경연과목 역시 老論이 정한 四書五經의 차례로 10여 년의 경연을 진행하고, 곧이어 『心經』과 『資治通鑑綱目』을 강의했으며, 그 中間에 『東國通鑑』, 『聖學輯要』, 『國朝寶鑑』, 『高麗史』 등을 교대로 강연했다. 영조는 『聖學輯要』에 대해 이 책이 『大學衍義』보다 절실하고 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주

14) 尹薰杓, 2010 「承政院日記 經筵記事의 特徵」 『史學研究』 100.

15) 池斗煥, 2009 「朝鮮時代 經筵官 研究」 『韓國學論叢』 31.

자의 문집을 정리한 『節酌通編』과 『朱子大全箇疑』을 講筵했다. 이것은 李珥와 宋時烈, 金昌協으로 이어지는 당대 주류 학파의 계승을 영조가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周禮』나 『貞觀政要』 등 왕권을 존중한 제왕학의 도서를 경연의 강독교재로 채택한다. 『陸宣公奏議』를 택한 이유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결국 英祖는 『國朝寶鑑』, 『陸宣公奏議』, 『李綱奏議』, 『名臣奏議』 등 중국의 왕도정치에 충실하면서도 군주에게 충성을 극진히 하는 사례를 학습하고 이를 『貞觀政要』, 『資治通鑑綱目』, 『宋元綱目』들을 통해 재정리한 다음 『東賢奏議』 등을 講筵하게 했다.¹⁶⁾ 이후 『周禮』나 『心經』 등 당시의 공론에 호응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정치의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경연을 활용했다.

정조는 영조와 마찬가지로 경연을 진행하면서도 이전에 중용되던 山林 經筵官의 실질적인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奎章閣을 중심으로 抄啓文臣制를 만들어 정치와 학술의 측면에서 근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月課를 내어 答案을 提出하게 하는 방식으로 문신들을 가르치며 經筵에서도 자신이 뽑고 가르친 신하들과 토론하는 것으로 경연을 운영했다.

經義問答의 결과물인 『經史講義』는 正祖의 높은 학문수준과 진지한 분위기로 인해 당대 조선에서는 최고 수준의 경사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지만, 그 기본 문제의식은 군주인 정조의 것이고, 논의의 진행방향은 정조의 지향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正祖는 즉위한 해(1776)에 규장각을 중건하고 유생과 고위관리들에게 정기적으로 직접 과제를 출제하고 채점하며, 그 결과를 관리선발에 활용하여 명실 공히 신민의 교육을 담당하는 君師를 자처했다.

경연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抄啓文臣制度를 적극 운용했던 1781년부터 1792년에는 초계문신의 선발과 과제부여를 통한 수업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1781년의 3월 18일의 경연의 현장을 담은 『館閣講義』에는 奎章閣에서 時任·原任 提學, 直提學, 直閣, 待敎 등의 當代 高位官吏 14명이 『近思錄』講義를 경청한 것과, 弘文館에서 領經筵事, 知經筵事, 同知經筵事, 參贊官, 侍講官, 試讀官, 檢討官 등 21명이 참석하여 『心經』을 講論한 내용이 收錄되어 있다. 正祖 當代에 국정의 학술을 담당하거나 주도한 관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近思錄』과 『心經』

16) 池斗煥, 2009 앞의 논문.

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것인데, 그 형식은 국왕인 정조가 질문하고 신하들의 대답을 들은 다음 정조가 최종 결론을 내라는 것이다. 정조의 문제의식을 정조가 정리하는 방식으로 학문과 정치를 온전히 정조가 장악했음을 의미한다. 상당한 수준의 학술 담론이 제기되었고, 매우 평화로운 방식이었지만 그 주도권이 온전히 군주인 정조에게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어용적 성격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經史講義』는 바로 正祖의 의지 하에 선발된 초계문신들이 정조의 질문에 답한 것이다. 초계문신은 1881년에 최초로 20명이 선발된 이래 11차에 142명이 선발되었는데 그들은 훗날 규장각 각신을 비롯하여 정부 중앙 고위직의 태반을 장악했다. 그들은 매월 1회 이상 국왕 정조가 친림하는 조문에 답해야 했으므로 학문에 몰두했다. 정조는 주자학에 학문적 근간을 두었지만 청으로부터 유입되던 고증학의 성과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흡수하고 있었으므로 그 문제의 수준은 당대 조선의 최고 수준이었다.¹⁷⁾ 조선 후기 일급학자로 평가되는 다산 정약용 역시 군사인 정조에 의해 많은 학문적 계발을 받았음을 고백한 바 있다.¹⁸⁾

이러한 영조와 정조의 경연과 경의문답의 시행은 종래 신하인 경연관에게 수업받았던 국왕에서 일변하여 공론정치의 유교정치이상을 군주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유교의 전통적인 이상을 바탕으로 현실의 군주권력을 정당화 내지 공고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술수적 권력이나 무력이 아니라 학문적 권위와 합의된 제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유교정치의 발전적 요소가 없지 않지만 전제군주인 절대 권력자가 공론까지 장악했다는 점에서는 그 문제점이 없지 않다.

조선의 문치주의와 조정공론정치를 견인한 핵심제도는 군주와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직언했던 臺諫制와 정론직필의 역사기록을 담당한 史官制와 함께 經筵制를 손꼽을 수 있다. 조선의 사대부와 군주들은 經筵을 君主가 公論의 역할을 하는 사대부와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유념했기 때문에 壬辰倭亂이라는 국란을 만나 避亂한 가운데에서도 선조는 경연에 임했고, 부왕 영조의 장례기간에도 정조는 경연을 열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8세기 조선의 군주, 영조와 정조

17) 김문식, 2007 앞의 책 참조.

18) 함영대, 2011 『성호학파의 맹자학』, 태학사.

는 신하들의 학식과 경륜을 누르고 그 경연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정조의 經史講義와 『鄒書春記』 이하의 경학 저작들은 그 과정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문치주의와 도학정치가 뿌리 깊었던 조선에서 학술은 정치권력과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영조와 정조는 그 길항관계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정조에게서 보이는 御札 정치와는 별도로 문신이자 학자였던 신하들의 진심어린 복종을 이끌어 내는 기제로 활용되었다.

3. 정조의 맹자학

정조의 규장각과 학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은 규장각에 대한 책문에서 그 대체가 잘 나타나 있다. 정조는 송대에 건립된 다양한 왕실의 장서각들과 그 장서각의 관리를 맡은 관원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역사적 변천을 책문했다.

송대에 이르러 龍圖閣 · 天章閣 · 寶文閣 · 顯謨閣 · 徽猷閣 · 敘文閣 · 煥章閣 · 華文閣 · 寶謨閣 · 寶章閣 등이 있었는데, 그 세대의 선후와 건립한 장소와 명명한 뜻을 모두 일일이 지적할 수 있겠느냐? 또한 學士 · 直學士 · 直閣 · 待制 등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 자질의 높낮음과 선발의 규례와 책임의 경중도 반복하여 토론할 수 있겠느냐?¹⁹⁾

그러한 이유에 정조는 솔직하게 자신의 포부를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문화를 진흥하는 것이 제왕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임을 역설했다. 문치와 교화를 진흥하기 위해 궁중에 규장각을 설치하고, 관원을 두는 데 일체 宋代의 故事와 같이 했는데 그 이유는 동방의 예악의 근본이 송대의 문화에 근원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19) 『弘齋全書』 卷48, 「策問 · 奎章閣」 “至宋而有龍圖閣 · 天章閣 · 寶文閣 · 顯謨閣 · 徽猷閣 · 敘文閣 · 煥章閣 · 華文閣 · 寶謨閣 · 寶章閣，其世代之先後，建置之處所，命名之精義，皆可一一歷指歟，亦有學士直學士直閣待制等官，其資秩之高下，掄選之格例，責任之輕重，亦可反復討論歟。”

천장각을 개설하여 時政의 闕失을 문의하고 보문각에 제수하여 장원한 사람을 등용하였는데, 그 뜻은 어디에 있느냐? ‘群玉冊府’란 어느 책에 보이며, ‘龍圖老子’란 어느 사람을 칭함이냐. 明 나라의 華蓋殿·文淵閣·文華殿·弘文閣은 아조의 규장각과 제도가 다르냐, 같으냐? 대체로 서책은 道를 신고, 전각은 서책을 갈무리하는 곳이다. 열성조의 전모와 공렬을 펼치고 사방의 문화를 전통시키는 것이 제왕으로서 맨 먼저 해야 할 책무이며 역대로 중요시하던 바이다. 생각건대 과덕한 나는 큰 계통을 새로 계승하여, 전모와 공렬을 현양하고 문치와 교화를 진흥하는 것을 우선의 책무로 삼았다. 그리하여 궁중에 규장각을 설치하고 또 제학·직제학·직각·대교 등의 관직을 설치하기를 일체 송나라의 고사와 같게 하였으니, 우리 동방의 예약의 근본이 여기에 있지 않겠느냐?²⁰⁾

정조는 규장각 설치를 시작으로 정녕 학술을 치국의 요체로 여겼다. 그는 학술 자체가 가지는 무궁한 가치와 저력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왕은 말하노라. 기술 중에 經術보다 큰 것은 없는데, 진실로 그 기술을 잘 다루지 못한다면 그 폐단도 또한 경술보다 고질적인 것이 없다. 내 일찍이 경술의 폐단을 우려하여 한 번 진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대부들도 보고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자대부들과 당세의 일을 대책하는 데 있어서 경술로서 清問의 제일 첫째의 뜻으로 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무엇을 경술이라고 하는가? 志에 이르기를, “성인의 제작을 經이라고 하고 현인의 저술을 傳이라고 하며, 인하여 설명한 것을 詁라고 하고, 인하여 章句를 나눈 것을 註라고 한다.”고 하였으니, 傳이하는 모두가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는 자는 제왕이고 이 기술을 차용하는 자는 頑主이며, 기술이 위에 있으면 세상의 교화가 맑은 것이고 기술이 아래에 있으면 스승의 도가 존속하는 것이니 경술이 정치에 있어서 그 관계됨이 중요하지 않느냐?²¹⁾

20) 앞의 글 “開天章而問時政之闕，除寶文而取魁甲之人者，其意何居，羣玉冊府見於何書，龍圖老子，稱於何人耶，皇明之華蓋殿文淵閣文華殿弘文閣，與我朝奎章閣之制同歟，異歟，大抵書以載道，閣以藏書，鋪張列朝之謨烈，興起四方之文化，此帝王之先務，而歷代之所重也惟我寡人新承丕緒，思欲以顯謨烈振文化爲先務，置奎章閣於禁中，又置提學直提學直閣待教等官，一如宋朝故事，我東方禮樂之本，其在斯乎”

21) 『弘齋全書』 卷51, 「策問4·經術」 “王若曰，術莫大於經術，而苟不能善其術，則其弊也又莫惱於經術，予嘗有憂於經術之弊，思有以一振之者，子大夫之所觀聞也。今與子大夫，策當世之務，可不可以經術爲清問之第一義乎。何謂經術，志曰，聖人之制作曰經，賢者之著述曰傳，因記訓曰詁，因章句曰註，則自傳以下，皆術也，而用此術者王，假此術者霸，術在上則世教淑，

정조가 생각하는 經術은 이른 바 經學이니 성인의 경전 외에는 모두 術인데, 이른 바 聖人의 經外의 내용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帝王이 된다고 지적한다. 잠시 借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을 이해하여 체득하여 이용하게 된다면 세상의 교화가 밝아지리라는 것이 경술에 대한 정조의 생각이었다. 그것이 스승의 도와도 관련이 되고, 정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경학을 제왕학, 君師의식과 연관지어 사고하는 것을 볼 수 있거니와 정치에 있어서의 경술, 경학의 비중을 깊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정조의 당대 학문에 대한 인식은 확고한 것이었는데 적어도 물명을 고증하는 것을 높이고, 敬義存養을 비웃는 것을 매우 우려스러워했다. 정조는 그 것을 ‘섭렵하는 학문’으로 치부하여 實得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박한 풍기를 이겨내지 못한 결과라고 통렬하게 비판한다. 전현의 학문은 적어도 道器가 융화되고 本末이 관철되는 충실한 학문이었다고 옹호했다.

대체로 옛날에 九經을 공부한 사람은 대개 모두 주고받은 원류가 확실한 근거가 있었다. 곧 횡으로 보았거나 종으로 보았거나 들어온 것을 주로 삼고 밖의 것을 객으로 삼는 것 따위를 논할 것 없이 요약하면 세심하고 정밀한 공부로 머리를 나란히 하고 서서 도와 그릇이 원만하게 융화되고 뿌리와 끝이 관철되게 하였다. 그런데 지금에 이른바 경술이라는 것은 어째서 이것과 크게 서로 거리가 먼 것이다. 物名에 주력하거나 기물에 지나치게 치밀하여 考證에 얹매이거나 변론에 집착하여, 대의가 귀결되는 곳을 제대로 탐구하여 작자의 마음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폐단이 마치 女史가 뜻도 모르면서 시를 암송하는 것과 같아서 ‘天人性命’이라면 진부하다고 지목하고 ‘敬義存養’이라면 오활하다고 비웃는다. 하늘도 땅도 두려워하지 않고 큰소리로 부르짖고 외치며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을 발견하였다고 자랑하는데, 그것은 진실로 추솔한 견해나 들뜬 지식으로 잘못 검토하였거나 도착된 해석이 아니라면 기껏해야 전인들이 관심 갖지 않고 그대로 보아 넘긴 것에 불과하다. 가령 瑰璫의 주석에 ‘夏나라의 瑰와 商나라의 璞’이라든가, 享禮의 주석에 ‘기운을 발하여 얼굴에 가득하게 한다[發氣滿容]’는 것과 許行의 주석에 ‘農家者類’라는 것 따위이다. 이것이 경의 뜻과 이치에 무슨 병통이 되며 경술의 훈고에 무슨 누가 되기에 공공연하게 나무라고 꾸짖으며 열을 올려 학설을 만들어 내고는, 황금을 쪼개어 저울질해 내는 훌륭한 匠人の 솜씨를 벼젓이 앞서려고 하느냐?

(중략) 내가 새로운 서적의 구입을 금하는 것이 어찌 금하고 싶어서 금하는 것이

겠느냐. 다만 섭렵하는 학문이 實得하는 데에 도움이 없고 부박한 습성이 가슴속에 스며드는 것을 참아내지 못해서이다. 미루어 보면 文辭나 行檢에 이르기까지 어디든 이러한 모양이라서 책상에 쌓여 있는 稗官小說에도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으며 좌석에 널려 있는 진기한 완구나 야한 솜씨를 고상한 취향으로 여기고 있다. 풍속은 이 때문에 나날이 어그러지고 사치는 이로 인하여 나날이 성하여져서, 점차로 異端과 邪學이 그 틈으로 끼어들어 경술이 자칫하면 종식되고 말 것이니 매우 염려가 된다. 앞으로 세상 도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인심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중략) 이것을 바꾸는 계기는 아마도 참된 경술에 종사하여 朱子를 잘 배우는 것에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여야 성인의 말이 아닌 것과 떳떳하지 않은 글을 울밖으로 버려 더러운 것을 보듯이 하여, 한 시대의 풍습과 승상하는 것을 九經의 올바른 맥락과 진정한 전통 사이에서 부지런히 힘쓰게 하고, 나아가서 집집마다 스승의 자리를 마련하고 사람마다 강론하여서 한 번 변하여 도에 이르게 하는 효과를 얻게 할 수 있겠느냐?²²⁾

정조는 자신이 주관한 경연에서도 그 경학관을 큰 변화없이 관철시킨다. 정조는 즉위한 다음해인 1777년 10월 22일부터 『논어·학이』 편부터 경연을 속개하여 1780년 4월 17일 석강에 「요월」 편의 강독을 마치고 1780년 5월 11일 『대학』 강독을 시작하여 1780년 6월 9일에 『대학』 강독을 마쳤다. 1780년 7월 26일에 마침내 『맹자』 강독을 시작했다. 이렇게 사서를 차례대로 경연에서 강독하게 된 것은 1777년(정조 1) 10월 18일에 부교리 南鶴聞이 상소하여 당시 강독하던 『春

22) 앞의 글 “凡古之爲九經之術者，類皆授受源流，確有據依，即勿論看觀之橫豎，出入之主奴，要之細心精工，齊頭並腳，使道器圓融，本末貫徹，爾今之所謂經術者，何與此大相遠也。驚於物名，詳於器械，泥於考證，膠於辯博，而曾莫能究其大義之所歸，以獲作者之心，故其弊也如女史之誦詩，天人性命，則目之以陳腐，敬義存養，則笑之爲迂滯，而其所胡叫胡喊，不怕天不怕地，自詫以發所未發者，苟非粗見浮識之謬檢錯解者，不過是前人不經意而仍舊貫處，且如瑚璉註之夏瑚商璉，享禮註之發氣滿容，許行註之農家者流，此在經術，何病於義理，何累於訓詁，猶且公肆詆訶，盛氣立說，覩然求多於分金稱出之高手，(중략)予所以禁購新書，豈得已也，惟其涉獵之學，無賴於實得，浮薄之習，叵耐於近裏，則推之爲文辭也行檢也，無往非此箇樣子，而堆案之稗官小說，略無愧色，匣席之珍玩淫技，認作雅致風俗由此日乖，奢侈職是日盛，駸駸乎異端邪學之干其間，而經之術，或幾乎息矣，恤恤乎思深哉，將如世道何，如人心何，予自近年以來，民生之困憊，朝象之潰裂，何莫非中朝之所發歎，而此猶餘事也，細節也，最是經術之弊，而世道人心之漸就難醫，爲憂之深慮之遠之大關，每當中夜無寐，繞壁而彷徨焉者，子大夫，亦豈盡知之，夫知如此爲病，不如此爲藥，經術所以受弊之源，子大夫尙能悉其由乎，予則曰好新以開其端，無嚴以致其極，好新故厭菽粟，無嚴故侮聖賢，此其轉移之機，顧不在於從事眞經術而善學朱夫子乎”

『秋胡傳』 대신 유교경전을 번갈아 읽도록 주청했기 때문이다.²³⁾ 맹자의 경연강의는 1780년 7월 26일에서 1785년 9월 30일까지 거의 5년여를 걸쳐 진행되었다. 완독을 하지 못하고 「이루편」에서 그쳤지만 경연의 과정에서는 거의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어 당대 경연관과 군주인 정조의 해석적 입장을 잘 보여준다.

〈표 1〉 정조의 맹자 경연강의 일정

일시	형태	강독범위	비고
1780.7.26		見梁惠王～何必曰利	양혜왕상 1장
7.28	晝講	孟子見梁惠王立於沼上～止豈能獨樂哉。	양혜왕상 2장
7.29	주강	梁惠王曰寡人之於國，～天下之民至焉	양혜왕상 3장
7.30	주강	梁惠王曰寡人願安承敎～如之何其使斯民飢而死也	양혜왕상 4장
8.2	주강	自梁惠王曰晉國天下莫強焉，止王請勿疑	양혜왕상 5장
8.9	朝講	自孟子見梁襄王，止沛然誰能禦之。	양혜왕상 6장
8.11	주강	自齊宣王問曰齊桓・晉文之事，止遠庖廚也	양혜왕상 7장 1
9.6	주강	自王說曰止非不能也	양혜왕상 7장 2
9.11	주강	自曰不爲者與不能者之形，止將以求吾所大欲也	양혜왕상 7장 3
9.14	주강	自曰王之所大欲可得聞歟，止其如是孰能禦之	양혜왕상 7장 4
9.24	주강	自今王發政施仁，止盍反其本矣	양혜왕상 7장 5
10.13	주강	自齊宣王見孟子於雪宮，止一遊一豫爲諸侯度	양혜왕하 4장
...			
1781.2.10	조강	自'公孫丑問曰夫子當路於齊'，止'以齊王猶反手也'	공손추상 1장 1
2.11	주강	自'若是則弟子之惑滋甚'，止'曰文王何可當也'	공손추상 1장 2
2.18	주강	自'齊人有言曰'，止'當今之時'	공손추상 1장 3
2.19	주강	自'公孫丑問曰夫子加齊之卿相'，止'孟施舍似曾子'章	공손추상 2장 1
2.21	주강	自'孟施舍似曾子'，止'無暴其氣'	공손추상 2장 2
2.29	주강	'旣曰志至焉氣次焉'，止'敢問夫子惡乎長'章	공손추상 2장 3

23) 『正祖實錄』1年 10月 18일 “副校理南鶴聞上疏曰，法講，卽帝王自修之工也。臣意則莫若以易、禮、詩、書、論、孟、庸、學，輪回進講，政謨治範之所以取資於斯者，有若布帛菽粟之日用而不可廢。且銅闕畢工之編，溫習於御極之後者，亦豈不美哉！”

3.7	주강	自必有事焉而勿正，止必從吾言矣	공순추상 2장 4
1781.3.18		館閣講義	
4.5	주강	自‘孟子曰，以力假仁者’，止‘無恩不服此之謂也’	공순추상 3장
윤5.26	주강	自‘孟子曰，矢人猶恐不傷人’，止‘仁者如射’	공순추상 7장
7.28	조강	自‘孟子曰子路’，止‘君子莫大乎與人爲善’訖	공송추상 8장
8.10	주강	自‘孟子曰天時’，止‘戰必勝矣’	공순추하 1장
10.17	주강	自‘孟子將朝王’，止‘造於朝’章訖	공순추하 2장
11.5	조강	『孟子』第二卷，自‘不得已而之景丑氏’，止‘以慢其二哉’訖	공순추하 2장 2
1782.1.4	주강	自‘故將有爲之君’，止‘湯之於伊尹章’訖	공순추하 2장 3
...			
1783.4.19	주강	自‘堯以不得舜爲已憂’，至‘爲天下得人難’	등문공상 4장
4.28	주강	上親講『孟子』第三卷二十四板上片，堯以不得舜爲已憂大文及分人以財謂之惠大文，錫夏進講下片，孔子曰大哉，堯之爲君大文，二十五板吾聞用夏變夷大文及孔子沒大文	등문공상 4장, 5장
6.5	주강	上讀『孟子』許行章	등문공상 5장
7.27	주강	自‘墨者夷之因徐辟’，止‘則是以所賤事親也’	등문공상 5장 2
...			
1784.1.9	주강	自‘陳代曰不見諸侯宜若小然’，止‘枉尋直尺而利亦可爲與’	등문공하 1장 2
1.13	주강	上讀前授章自‘昔者趙簡子’，止‘未有能直人者也’，道浩讀自‘景春曰’，止‘此之謂大丈夫’，上讀新受章訖，命陳文義	등문공하 1장 3, 2장
2.8	주강	自‘景春曰公孫衍·張儀’，止‘此之謂大丈夫’，濟遠讀新受音自‘周霄問曰古之君子仕乎?’，止‘亦不足吊乎?’	등문공하 2장
...			
1785.2.22	주강	‘樂正子從於子敖之齊’，止‘此之謂大孝’	이루상 25장
4.3	주강	思憲進讀自‘孟子曰無罪而殺士則大夫可以去’，止‘行不必果惟義所在’，讀訖，上讀新受音自‘無罪而殺士則大夫可以去’，止‘行不必果惟義所在’，訖。	이루하 4장
8.23	주강	上讀『孟子』‘大人者不失其赤子之心’章	이루하 12장
8.27	주강	自‘孟子曰禹惡旨酒’，止‘坐而待旦’，訖。	이루하 20장
9.16	주강	自‘孟子曰王者之迹’，止‘發乘矢而後反’	이루하 21장
9.30	주강	自‘孟子曰西子蒙不潔’，止‘以我爲簡不亦異乎’	이루하 24장, 25장
		경연 맹자강의 종료 이후 『중용』 강의 속계	

이렇게 진행된 경연 강의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장면을 볼 수 있다. 정조 4년 1780년 9월 6일 주강에 입시했던 시독관 洪文泳은 맹자의 해당 구절을 진강할 때에 討를 잘못 읽었다고 특진관으로 입시한 徐浩修가 推考해야 한다고 지적을 받았다.²⁴⁾

그리고 전반적인 경연장의 분위기는 정조가 경전문의에 대해 듣고 이해하는 것이었지만 때로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는 정조 역시 질의나 토론에 참여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정조가 학술적으로 경연을 압도하는 분위기였다.²⁵⁾ 경연에서의 이러한 분위기는 정조의 맹자학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으로 이어졌다. 정조는 군주로서 경전을 읽어가며 원칙론과 시세에 대한 조응을 아울러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정조는 仁과 義, 王道와 霸道에 대한 맹자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이 있었다. 당대 조선에서 맹자를 이해하는 주자학적 해석의 분위기가 짙게 풍기는 대목이 그대로 노출된다. 그런데 왕도와 패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이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곧 왕패의 문제에서 맹자는 선명한 입장은 보였음에도

24) 『承政院日記』 정조 4년 9월 11일 浩修曰, “法講事體至重, 而上番儒臣洪文泳, 進講之際, 誤讀一吐, 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

25) 『承政院日記』 정조 4년 11월 19일: 11월 23일 경연 내용 참조, 여기에서 정조는 신하들의 진강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을 뿐만 아니라 맹자에 대해서도 매우 운지적을 했다. 上曰, “文王三分天下, 有其二, 而不敢專征者, 惟在協天意順民心而已. 至於武王之軍于牧野, 執天休命者, 亦不出順天人之意也. 今此宣王之間以悅不悅者, 專以功利上言之也, 孟子對以悅則取之不悅則勿取者, 專出抑揚之意也. 若使齊宣, 伐昏立明, 則可協天人之心, 而專出於開國闢土, 則無異於以暴易暴也, 奚足以比論於文王·武王之事乎?” 民始曰, “孟子之對, 雖是專出於抑揚, 而以觀文義之外, 則似或有損於義理之論矣.” 上曰, “此章之對, 與文王好貨好色之論, 相爲表裏矣. 此雖出於開反之道, 而且以下章文義論之, 不有抑揚而如是乎?” 民始曰, “孟子之論, 果如是矣.”; 上曰, “亞聖之論, 或有胸襟之灑落, 而亦多有圭角處, 若不至孟子地位, 則如此對論, 亦可有欠於傳後世之道矣.” 이뿐 아니라 8월 2일의 경연에서는 맹자의 不尊周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출하기도 했다. 上曰, “孔子專爲周室, 孟子則專爲行王道, 而眼無周室, 至曰一怒而安天下之民, 以諸侯而豈能安天下之民乎? 又以勿毀明堂, 湯放桀, 武王伐紂等語, 反覆開導, 如使孔子, 當其時, 則王室雖微, 列國雖盛, 必不爲此矣. 若行王道, 則孟子將目覩周之亡乎? 以大賢而亦可爲是乎?”; “孟子之時, 去孔子不甚相遠, 而孔子之時, 人猶知尊周之爲義, 以孟子之大賢, 何其不思而至此哉? 是可怪也.”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역사상의 승패는 반드시 맹자가 말한 왕폐의 논란만큼 명쾌한 것이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義와 利란 두 자는 예나 지금이나 邪와 正이 나누어지는 곳이고 천하 국가의 치란이 말미암는 관문이다. 대개 唐虞 시대에 천하를 주고받고 할 즈음부터 이미 人心이니 道心이니 하는 설이 있었다. 소위 인심이란 아마도 利心인 것 같은데 어떤 물건에서 근원하였으며, 소위 도심이란 대체로 義心을 지적한 것인데 어느 곳에 뿌리를 두었느냐? 선유들의 해석에, “어떤 것은 性命의 정당한 것에 근원하고 어떤 것은 形氣의 사사로움에서 생긴다.” 하였다. 그렇다면 성명과 형기의 분계를 자세히 말할 수 있겠느냐?²⁶⁾

王道는 오직 의리만 취하므로 黃金에 비유하였고, 霸道는 오직 이익만을 중상하니 水鐵에 비유하였다. 그 義와 利에 있어서의 公과 私의 구별과 왕도는 황금이고 폐도는 수철이라는 뜻을 자세히 들어 볼 수 있겠느냐? 漢代에는 폐도를 섞어 사용하였으나 400년의 역년을 누렸고 唐代에는 순수한 왕도가 아니었으나 역시 천재일우의 운세를 열었다. 왕도와 폐도를 병용하고 의리와 이익을 겸행하여도 진실로 국가를 경영하는 도리에 해로움이 없는 것인가? 宋나라에는 인후한 가법이 있었고 明나라에는 제도가 훌륭하여 삼대의 유풍이 있었으니, 의리를 앞세우고 이익을 뒤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전성과 역년의 綿遠은 도리어 한당 시대에 따르지 못했음을 무엇 때문인가?²⁷⁾

이뿐 아니라 정조는 여전히 날카롭게 맹자에서 거론되는 논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견지한다.

利란 四德 중의 하나이며 乾道가 이를 주장한다. 그러므로 大易의 焱辭에 이를 말한 것이 매우 많으나 『역경』 읽기를 좋아한 공자는 이익이란 말을 드물게 하였으며

26) 「義利 庭試殿試」 “義利二字，卽古今邪正之所由分，而天下國家治亂之所由關也。蓋自唐虞授受之際，已有人心道心之說，則所謂人心者，似是利心，而原於何物。所謂道心者，蓋指義心，而根於何處歟。先儒釋之曰，或原於性命之正，或生於形氣之私。然則性命形氣之分，可得詳言歟？”

27) 위의 글 “王道，惟義是取，而譬之於金，霸道，惟利是尚，而喻之以鐵。其義利公私之別，王金霸鐵之意，可得詳聞歟。漢用雜霸，而猶享四百之祚，唐非純王，而亦啓千之一運，則王霸竝用，義利雙行，固無害於爲國之道歟。有宋之仁厚家法，皇明之制作彬蔚，些有三代之風，則可謂先義而後利，然而國步之全盛，邦籟之緜遠，反不及於漢唐之世者，何歟”

『역경』을 잘 이용한 맹자는 이익이란 말을 구사하지 않았다. 동일한 利 자인데, 거론 할 만한 畏차의 차이가 있겠느냐?²⁸⁾

정조의 맹자에 대한 인식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문신에 대한 친시 책문으로 제시된 문제이다. 여기에서 정조는 맹자를 공자 다음의 일인자로 지칭하면서 맹자에서 문제가 되는 다양한 논점에 대한 자신의 물음을 제시한다. 그런데 그 물음의 향방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 또한 흥미롭다. 우선 정조는 맹자 자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한다.

왕은 말하노라.

맹자는 공자 다음의 일인자다. 『맹자』 7편에는 맹자의 도가 실려 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두루 초빙되었으나 좋은 때를 만나지 못하고 물러나 스스로 저술하였다.”고 하고, 어떤 이는 “죽은 후에 문인들이 맹자의 말을 추기한 것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느 것이 옳으냐? 『논어』는 단지 仁자만 설명하였는데, 『맹자』는 仁·義·禮·智의 四德을 아울러 가르쳤고, 『春秋』는 주나라의 왕실만을 높였는데 『맹자』는 제후에게 王道를 행하라고 권유하였다. 바라는 바는 공자를 배우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마치 상반된 듯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浩然之氣를 잘 배양한다는 것은 실로 前聖이 발표하지 못한 것을 발표한 공로가 있지마는, 성품이 선하다고만 한 것은 기를 논하지 않아서 미비하다는 협의가 없지 않은 것은 아니냐? 『시경』과 『서경』은 말하기 좋아하면서 유독 『주역』의 말은 인용하지 아니한 것은 어째서이냐? 성인의 영역에 넉넉히 들어가면서도 오히려 戰國의 풍습을 모면하지 못하는 것은 어째서이냐?²⁹⁾

아울러 정조는 錢唐이 죽음을 무릅쓰고 直諫한 일화와 『孟子節文』이 친술된 경위는 물론 司馬溫公이 『疑孟』을 지어 또한 평소의 말을 혈뜯고 기롱한 것 등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맹자의 역사적 이해 맥락을 따져 물었다.

28) 위의 글 “利居四德之一，而乾道主利，故大易之爻言利處甚多，而喜讀易之夫子，罕言利，善用易之孟子，不言利，同一利字，而抑有彼此同異之可言歟。”

29) 『弘齋全書』卷50, 「策問 孟子：到記儒生秋試及抄啓文臣親試」“王若曰，孟子，孔子後一人，而孟子七篇，孟子之道之所載也。或以爲歷聘不遇，退而自著，或以爲沒後門人，追記其言，二說何者爲是歟。論語只說仁字，孟子則并四德教人。春秋獨尊周室，而孟子則勸諸侯行王。所願學孔而若相反然者，何歟。善養浩氣，誠有發前聖未發之功，而只道性善，得無不論氣不備之嫌歟。好說詩書，而獨不引周易之辭者，何歟”

그런데 어찌하여 이 책이 밝아질수록 斯文은 더욱 어두워지느냐? 良知의 학문은 告子에게 법통이 전하여지고, 오가며 들은 설은 태반이 鄉愿이다. 능히 자기의 밭을 버리지 않고 송나라 사람처럼 種苗의 짹을 뽑지 않으며 天理를 확장하고 人慾을 막아서 결출하게 성인의 무리가 될 수 있는 자가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무릇 몇 사람이나 되느냐? 나는 세상 도리가 편벽됨을 민망히 여기고 사람 마음이 거칠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書筵과 經筵에서 이 책을 강론한 것이 5, 6차에 가까우며, 또한 강경과 제술에 抄啓된 문신에게 명하여 열흘마다 과제로 삼아 강론하게 한 그 뜻이 어찌 이유가 없었겠느냐. 그러나 그 논설이 단지 일시의 입과 귀의 자료에 그칠 뿐이라면 한낱 형식적인 도구도 귀결될 뿐이니, 선을 확장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염려된다.³⁰⁾

정조의 결론적인 관심사는 경학, 경술을 통한 인심의 부지에 있었는데 경술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기가 진작되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정조의 경학에 대한 노력은 두 방면으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경전 원문에 대한 세심한 보완 및 출간이고 다른 하나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정리와 논술이다. 삼경사서정문은 바로 전자의 관심을 출판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에 대한 정조의 변은 이렇다.

‘서적의 양이 많아지면서 『중용』, 『대학』, 『논어』, 『맹자』는 永樂大全에서 대체로 정리되었지만 諸家의 訓誥 중에는 아직도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이 많다. 이제 石經의 古文처럼 경서의 正文만을 刊布해서 鄭康成 이전의 체재로 된다면 또한 선생과 학생들이 경문의 의미를 깊이 연구하는 데 일조가 될 것이다.’ 하였더니, 모두들 ‘전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므로, 宮僚 柳義養 등과 오류를 바로잡아 활자로 印行하였다. - 世宗朝에 주조한 甲寅活字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만들어져 문화적 가치를 지닌 금속활자이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닳았거나 잃어버린 글자도 많았다. 내가 임진년(1772, 영조 48)에 大朝에 품의하여 세종조에 찍은 鑄字本의 麻刻板을 찾아서 이를 字本으로 삼아 銅으로 15만 자를 주조하였는데, 이 책과 『易學啓蒙集箋』을 모두 이 활자로 摺印하였다. 대개 세종이 활자를 주조한 갑인년(1434, 세종 16) 이후 330여 년 만에 비로소 활자를 다시 주조[重鑄]하고 새로 주조한 활자로 새로 엮은 책을 찍어 낸 것은 세종조에 주자를 완성한 뒤에 『四書輯釋』 등의 책을 摺印하였던 故事를 이어받으려는 까닭에서이다.³¹⁾

30) 위의 글 “斯文愈晦, 良知之學, 傳法於告子, 塗聽之說, 太半是鄉愿, 其能不捨己田, 毋揠宋苗, 擴天理而遏人欲, 杰然爲聖人之徒者, 歷數千載, 凡幾人, 予憫世道之詖淫, 懼人心之茅塞, 背筵經筵, 講是書者近五六次, 又命抄啓講製文臣, 每句課講, 其意豈徒然哉, 第其論說, 特資一時之口耳, 則抑恐其徒爲應文之歸, 難期擴善之效.”

31) 『弘齋全書』 卷179, 「群書標記 · 經書正文」 “載籍隨博, 廉學語孟, 則永樂大全, 稍存筆削之”

아울러 구체적인 경전에 대한 학습을 진전시켜 나갔는데 경사강의는 그 구체적인 산물이며 『맹자강의』는 그 중 하나이다.

條問 및 신축년(1781)에 뽑은 『講義』 2권과 조문 및 계묘년(1783)에 뽑은 『강의』 1권은 을사년(1785)에 초계문신 서형수에게 명하여 편찬한 것이고, 조문 및 갑진년(1784) · 병오년(1786) · 정미년(1787)에 뽑은 『강의』 1권은 신해년에 초계문신 서유구에게 명하여 편찬한 것이다.

주자가 언젠가 “『맹자』는 알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맹자가 性을 말할 때에는 氣質을 섞지 않고 곧바로 本源의 문제를 탐구하고, 情을 말할 때에는 측은 · 수오 · 사양 · 시비를 인 · 의 · 예 · 지의 단서라 하였기 때문이며, 기타 夜氣에 대한 설명, 求放心의 교훈, 知言과 養氣에 대한 의논 등이 어느 하나 義理의 精蘊이며 學問의 핵심을 이루는 문제가 아닌 것이 없다. 이 점이 바로 알기 어려운 이유인 것이다. 맹자의 공로가 禹 임금의 治水의 공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도 이 점에 있는 것이다.

나는 四子書에 대해서 언제나 年課나 月程을 정해서 공부해 왔다. 그중에서도 『맹자』 7편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음미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니, 이는 주자가 “모름지기 『맹자』가 내 가슴속에 들어앉도록 수백 수천 번을 읽으면 저절로 精通해 진다.”고 한 말처럼 되기를 바라서였다. 그러는 사이 상자에 담아 놓은 筍記도 이미 쌓여서 卷軸을 이루었다.

조문은 신하들이 訓詁나 부분적인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문제들을 손 가는 대로 뽑아낸 것이기는 하지만, 반복해서 마음을 쓴 것은 대부분 慘隱章의 四端과 不動心章의 集義工夫와 告子篇의 理氣의 경계점 등에 대한 것이다.³²⁾

義, 然如諸家訓詁, 尚多迷津之歎, 今若祇取正文刊布, 如石經古文, 而得康成以前體裁, 則亦可為經生學士深思力究之一助, 兮然, 乃與宮僚柳義養等, 勸諫訂訛, 以活字印行, <世宗甲寅活字, 卽我東肇造之文物也, 歷年既久, 刑軼亦多, 余於壬辰, 糸于大朝, 搜得世宗朝已經範鎔之木本銅鑄十五萬字, 是書及易學啓蒙集箋, 并用此摹印, 盖自世宗甲寅以後三百有三十餘年, 始克重鑄活字, 而用新鑄之字, 印新編之書, 亦所以仰述世宗朝鑄字成後摹印四書輯釋等書之故事也>, ○ 親撰跋曰, 三經四書之集諸家箋註為大全者, 五十有一冊也, 余於視膳餘暇, 常欲從事於斯, 以其編帙既廣, 難於領會病之, 謹取正文, 合為一帙, 凡五冊也, 夫自五十有一冊而為五冊, 可謂約矣, 自一心而視五冊則亦博矣, 運之方寸, 以精其義, 推諸事為, 以致其用, 則博固不可不約, 約又未始不博也, 然此編紙資循環溫習而已, 欲詳求旨義, 其惟大全乎, 此又著工之序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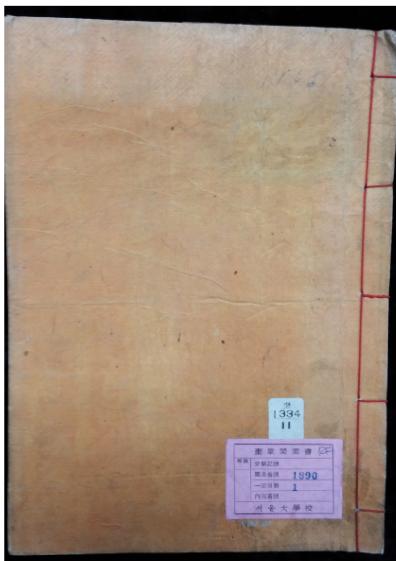
32) 『弘齋全書』 卷180, 「群書標記 · 孟子講義」 “條問辛丑選二卷, 條問癸卯選一卷, 乙巳, 命抄啓文臣徐澄修編次, 條問甲辰丙午丁未選一卷, 辛亥, 命抄啓文臣徐有榘編次, 朱子嘗謂孟子難讀, 蓋言性則不雜乎氣質而直探本源, 言情則以惻隱羞惡辭讓是非為仁義禮智之端, 他如夜氣之說, 求放心之訓, 知言養氣之論, 無往非義理之精蘊, 學問之頭腦, 此其所以難讀, 而孟子之功, 不在禹下, 亦在於此. 予於四子, 蓋嘗年課月程, 而於此七篇, 尤費探玩之工, 尚庶幾朱子所謂須教他在吾肚中, 先千百轉, 便自然純熟者, 而巾篋之筭記, 亦已堆積卷軸矣, 其條問

한편 이러한 강의의 가장 원숙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鄒書敬選』으로 추정되는 1책본(奎中1890)이다. 이 책은 당초 『奎章閣圖書中國本綜合目錄』(1982 서울대학교도서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던 것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책은 정조 맹자학의 일면을 보여주는 『鄒書敬選』과 매우 유관한 것으로 『추서경선』의 초기본으로 추정할 수 있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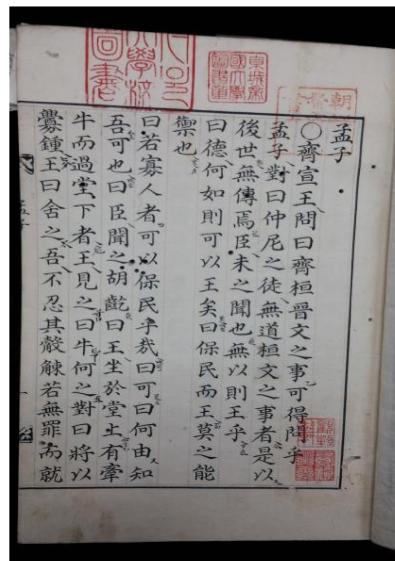
孟子 (표지는 무제) [編者未詳] [紀年未詳]

1冊 (18張) 寫, 33.8×22.4cm

印 : [貳極之章, 觀物軒] / [朝鮮總督府圖書, 京城帝國大學圖書館, 서울大學校圖書]



〈그림 1〉 『맹자』(규중1890) 표지



〈그림 2〉 『맹자:鄒書敬選』(규중1890) 1면

諸臣，則雖隨手拈出，訓詁支義之錯見，而反復致意，多在於惻隱章之四端，不動心章之集義工夫，告子篇之理氣界分云”

- 33) 단, 장서각에 『鄒書敬選』(K1-177)이라는 서명의 책이 확인된다. 여러 정황을 보면 이 책이 원본 『추서경선』이다. 규장각의 이 책은 『추서경선』의 선행본으로 보이는데 다만 1장의 출입이 있다. 규장각본은 四端章이 수록되어 있는 반면 장서각본은 사단장이 생략되고 魚我所欲章이 수록되었다. 이는 정조가 『주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차이는 규장각본은 언해의 내용이 본문의 난 위에도 별도로 수록되어 있어 進講用으로 추측되며 장서각본은 본문에 혼토만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1797년 정조 즉위 21년에 편찬한 것으로 『맹자』의 내용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그 내용을 정서해 놓은 것이다. 정조는 『맹자』가 ‘도를 전하고 덕을 조술한 것’으로 원칙과 방법을 자유롭게 운용하여 신명스러워 이를 바 뜻이 원대하고 그 말이 문채가 있다는 평가에 딱 걸맞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므로 濂溪의 周敦頤와, 洛陽의 程顥·程頤 형제, 關中의 張載와 閩中의 朱熹로 이어지는 송대의 유자들은 맹자의 道를 배워 그 글을 이해했고, 董仲舒나 賈誼, 韓愈나 歐陽脩는 맹자의 문장을 통해 도를 알았다고 하는 평가를 내렸다. 결국 도와 문장을 겸해서 체득하는 것만이 맹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정조는 맹자의 문장만을 수용해 批點을 친蘇洵을 ‘『맹자』의 거죽만 아는 자’라고 비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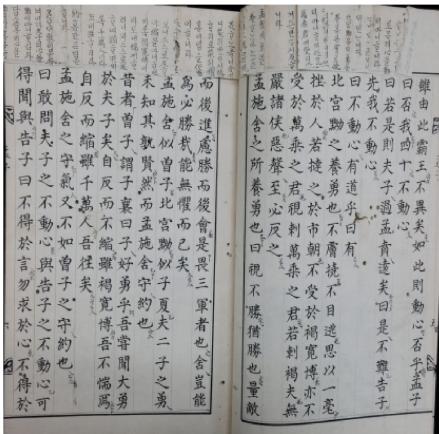
이 『鄒書敬選』은 정조 스스로의 고백에 따르면 몇 편의 『孟子講義』와 常課로 암송하던 것을 편집하여 1권으로 만든 것인데 『맹자』가 道理의 淵府이고 모든 원칙과 방법의 지극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늘 곁에 두고 보았다고 한다. 모두 7장으로 나누었는데 『군서표기』의 『鄒書敬選』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검토해 본다.

제1장 以羊易牛章장에서는 仁을 제시하고 義를 이끌어낸 힘과 王道를 내세우고 霸道를 배격한 실마리가 모두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고, 齊宣王이 맹자의 가르침에 대해 성의를 보이는 것을 평가하면서 그가 ‘재물을 좋아한다’, ‘미인을 좋아한다고 말한 것은 속으로는 원하면서 곁으로는 아닌 체하는 자들보다 낫고, 그가 雪宮이나 苑囿에서 있었던 일도 새매를 품속에 숨기고 메뚜기를 삼킨 자보다는 월등한 것이라고 지적하여 제선왕의 國壤으로 인해 맹자가 잠시나마 인정의 정치적 이상을 펼칠 기회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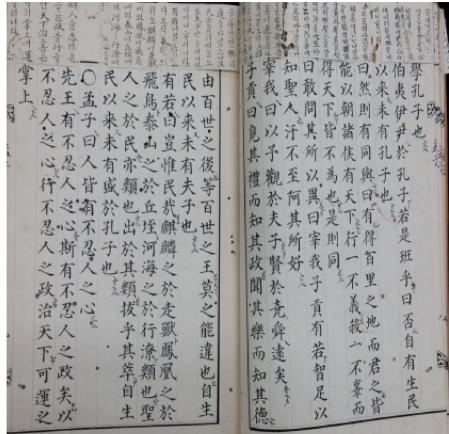
仁義와 王霸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인 맹자독법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제

34) 『群書標記』 “鄒書七篇，以傳道述德之言，運規矩妙方圓，而神明之，所謂其旨遠其辭文者也。濂洛關閩，得其道而闡其文，董賈韓歐，因其文而窺其道，至若畊於道而求諸文，如蘇洵之點批，則蓋亦淺之乎知孟子者也。予於鄒書，既有講義諸篇，以發其盡心知命之蘊，又以平日之常課諷誦者序次之爲一卷，以作昕夕常目之資，皆道理之淵府，而規矩方圓之至者也。凡七章” 이하 이 『군서표기』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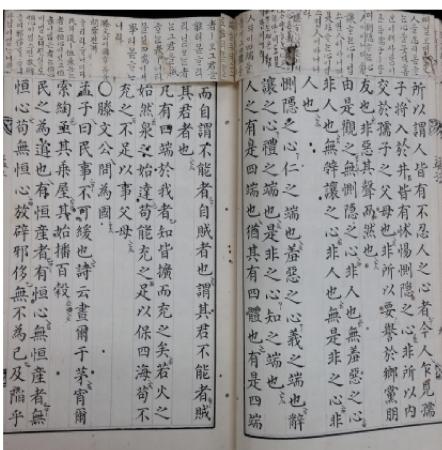
선왕에 대한 평가만은 군왕의 맹자독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맹자』를 맹자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선왕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방식은 그가 경전을 대하는 기본적인 인식의 실마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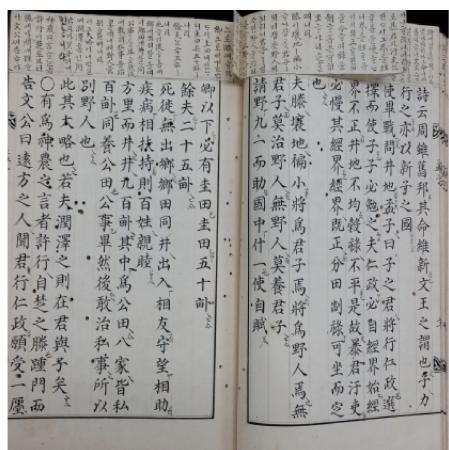
〈그림 3〉 제2장 浩然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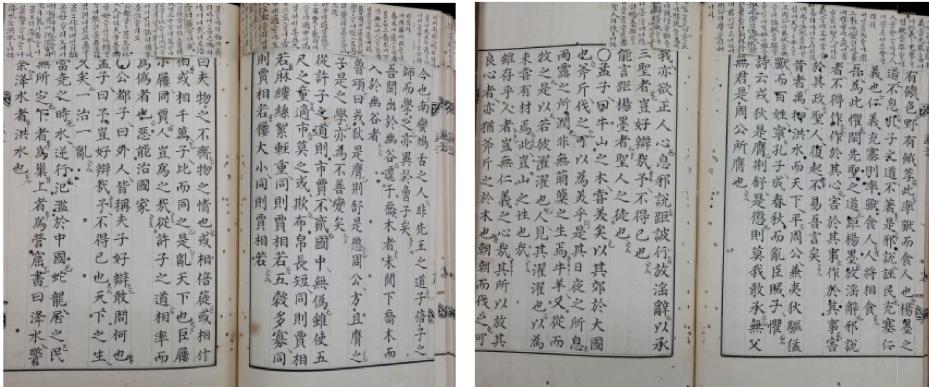
〈그림 4〉 제2-1장 不忍人之心章



〈그림 5〉 제3장 滕文公問爲國章



〈그림 6〉 제4장 神農言者許行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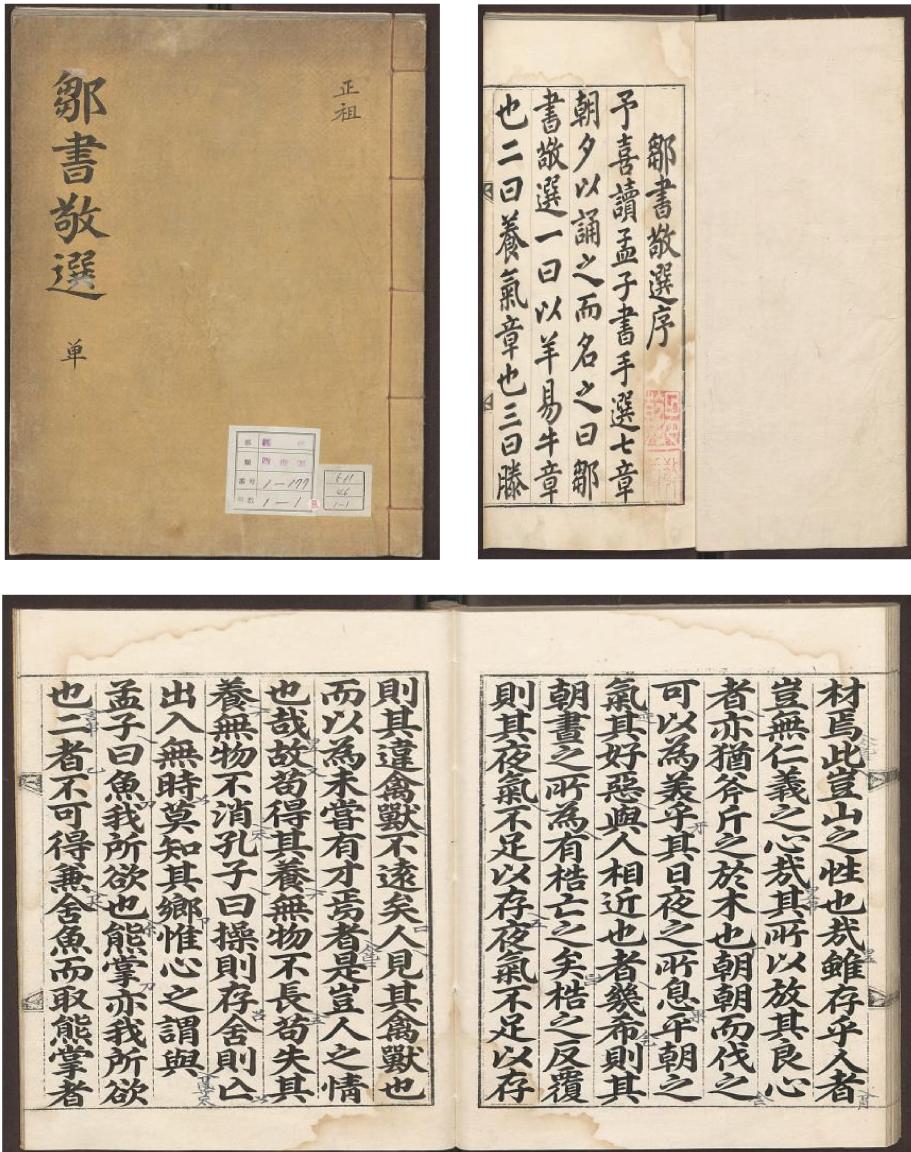
<그림 7> 제5장 夫子好辯章

<그림 8> 제6장 牛山之木章

제2장 養氣장에서는 浩然之氣의 성격에 주목하여 호연지기를 ‘이치와 병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理氣를 말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다[至大至剛]’는 것은 氣의 體이고, ‘의와 도를 짹하고 있다[配義與道]’는 것은 氣의 用을 말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體用을 말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知言은 知에 속하고 養氣는 行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知行을 말한 것이라고 지적하여 이 논점을 天理 등의 추상적인 논점으로 추구하지 않았다. 지행의 문제로 간결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程子가 이른바 ‘맹자는 전대의 성인이 말하지 못했던 것을 확충해서 말했다’고 한 것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仁義와 理氣, 知行의 문제를 모두 지적했지만 이론적 번뇌함이 아닌 명확하고 간결한 이해에 더욱 중점을 두는 해석 방식임을 알겠다.

제3장의 滕文公問爲國章은 맹자가 과연 聖人일 수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정조는 堯舜 이후 周公이 匠人을 두고 경작지에 水路를 만들었으며, 시경의 翱雅편을 지어 농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등 만세를 위해 태평의 길을 열어 놓았으나 그 후 700년 동안이나 이 문제를 언급하는 이들이 없었는데 맹자가 비로소 치국의 도로 井田을 언급하였으니 성인 다음 가는 사람으로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 인재라고 평가했다. 정조는 특히 맹자가 백성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산업을 제정할 것을 말한 다음 明倫을 말했고, 먼저 토지의 境界부터 논한 다음 親睦을 언급하여 마침내 王道의 시초가 되었던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림 9〉『추서경선』에서 교체된 〈아야소옥장〉

맹자의 井田章에 대한 언급은 이후 경세의 논점에서 적지 않게 거론되는 것이지만 군왕의 입장에서 맹자가 취한 치국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

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는 정조의 맹자학의 가장 본령적인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그의 맹자학은 정녕 제왕학으로서의 성격이 확고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제4장의 神農言者許行章의 해석은 정조 맹자학의 흥미로운 국면이다. 정조는 이 장을 맹자가 공자의 春秋大義를 陳相이 스승을 배반한 것을 비유로 들어 밝힌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장은 일반적으로 北學과 用夏變夷가 등장하면서 맹자의 文化整體性, 즉 華夷思想을 그려낸 장으로 읽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정조는 그런 독법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맹자의 春秋大義의 정신으로 읽었다. 정조는 그것이 이 장에 대한 言外의 뜻을 제대로 읽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맹자의 시대가 공자가 『春秋』를 지어 夷狄을 물리친 시대와는 달리 周나라는 점점 쇠하고 秦나라와 楚나라가 서로 패권을 다투다 급기야는 春秋大義가 겨우 명목만 남았던 시대였다는 그 역사적 배경을 중시하여 내린 해석이다.

이러한 정조의 과감한 해석적 시도는 經史講義를 통해 축적된 경전 해석의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으로 생각된다. 1800년에 이루어지는 정조 최후의 맹자해석인 『鄒書春記』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연하게 나타난다.³⁵⁾

제5장의 夫子好辯章의 해석에서 정조는 ‘距楊墨’ 이 세 글자가 이 편의宗旨라고 이해하며 이단배척의 공로로 인해 맹자는 禹임금보다 못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학이 아닌 학문에 대한 정조의 일관된 척결의지가 맹자의 독법에서도 잘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35) 『추서춘기』에서 정조는 자신의 맹자학에 대해 주자의 뜻을 계승하는 것에 대해 자부하면서(“雖深思奧義, 不足以上繼考亭之隅坐言志” 『홍재전서』 권120, 「추서춘기」 1 이하 同) 고증에 대해서는 그다지 의미를 두지 않은 채 의리의 문제만을 다룬다고 적시하고(俱非義理關頭, 此等處闊略看之無妨) 정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전의 강학이 구체적인 경세에 대한 식견을 바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적시했고, ‘人物性同異’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은 성현이 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마디로 일갈했다(人物性之同異, 不惟不欲強解, 又不欲出奴入主於甲乙, 大抵義理公物, 當於理則爲義, 而後人汨於私意, 才有一容喙一瞬目, 東捏西拶, 畢竟扮作兩塊圈套, 然後又必屬此屬彼, 小而爲紛競, 大而爲黨論, 莫曰天下無兩是雙非, 此段有何大關係於做聖做賢之方耶). 정조의 『추서춘기』는 정조 맹자학의 정점을 보여주는 저작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후고를 기다린다. 이 점에 대한 기준의 논의로는 백민정, 2009 「『맹자』 해석에 나타난 정조의 사유경향 분석: 『맹자강의』 어제조문 및 조대와 『추서춘기』의 문답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34: 정일균, 2012 「정조의 맹자론(1): 『추서춘기』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23 참조.

제6장과 牛山之木章과 제7장의 魚我所欲章에 대해 정조는 存養의 공부에 대해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뜻으로 후학들을 가르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경사강의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자세하게 거론하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정조는 그 내용의 조리가 해와 별처럼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맹자가 말한 ‘夜氣’라는 것은 子思도 미처 말하지 못했던 것이며, ‘本心’이라고 한 것은 바로 舜임금의 교훈이었던 16자 심법의 바로 ‘危微’라고 지적하여 각 경전의 핵심 내용에 대한 경전을 통관하는 넓은 시야를 보여주었다.

한편 이 『추서경선』에 대해 정조는 매우 자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군서표기』의 말미에 이 책이 『易傳』의 묘리를 터득한 것이라고까지 자평했다.

지금 내가 가려 뽑아서는 안 되는 책을 가려 뽑은 것이 왜 의미가 없겠는가. 또 내가 들기에는 맹자는 『주역』을 말하지 않았으면서도 『주역』을 잘 활용하였다라고 하는데 『주역』의 묘리가 바로 내가 뽑은 7장에 담겨져 있다. 내가 비록 견문과 지식은 부족하지만 스스로 『易傳』의 의미를 터득했다고 자부한다. 왜냐하면 맨 처음 것은 『주역』의 咸卦에서 따온 것이고, 두 번째는 井卦, 세 번째는 益卦, 네 번째는 夬卦, 다섯 번째는 艮卦, 여섯 번째는 塹卦, 일곱 번째는 大壯卦에서 따온 것으로, 이 문제는 『주역』을 아는 자하고나 말할 수 있을 것이다.³⁶⁾

다만 이러한 자기 학문에 대한 자부심은 그 적당한 학문적 적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온당하게 검토되지 못했다. 중국의 경우에도 맹자를 주역에 비겨 논의한 사례가 있지만 그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고 경학 해석의 전통에서 주류가 되지는 못했다. 정조의 학문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은 점차 어느 정도는 창劫을 넘어선 독선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고 짐작된다.

36) 『弘齋全書』 卷181, 「群書標記 3 · 鄒書敬選」 “今予之選於不可選，豈無義歟，抑予聞之，孟子不言易而善用易，易之妙，涵於七章，予雖謾淺智，而自以爲獨得其傳也。何則，初一取諸咸，次二取諸井，次三取諸益，次四取諸夬，次五取諸艮，次六塞以之，次七大壯如之，此可與知者道也。”

4. 남는 문제

이 논문은 경연의 측면에서 정조의 맹자해석을 검토한 것이다. 경연은 군주가 신하와 함께 경사를 강론하는 가운데 국사의 중요한 현안도 검토하는 자리로 학문과 국정논의의 핵심적인 자리이다.

그런데 경연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군주의 의중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으며, 군주의 의지를 전환하거나 변화시키는 데 신하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조선의 경우, 호학군주였던 세종이나 성종, 중종, 영조나 정조 역시 신하의 말을 경청했지만 경연의 과목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거의 군주의 의지에 달린 문제였다.

정조의 경우, 맹자를 거의 5년에 걸쳐 강연하면서 적지 않은 논점을 검토했다. 경연에서 그는 주로 경연관의 설명을 들었지만 왕권의 문제나 해석상의 이해에서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신하들을 압도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거의 가르치는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1782년에 거행된 館閣講義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는 정점이다.

또한 '경사강의'를 통해 경연에서의 아쉬움을 신진학자에 대한 교육으로 전환시키기도 했다.³⁷⁾ 그의 대표적인 저작에서도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경연은 신하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신하를 가르치고 학습시키는 장으로 활용되었다. 정조는 적지 않은 학문적 격차가 있는 신하들을 대상으로 폭넓고 날카

37) 경연에서 강관들의 학술수준에 대해 정조는 매우 아쉬운 감을 가지고 있었다. 정민시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상이 이르기를, “신하들이 내가 경연에서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혹은 공부를 게을리 해서 그런 것이라 의심하기도 하지만, 이는 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다. 근래의 講官은 經術에 익숙한 자가 적으니, 만일 의심나는 글을 질문하여 심오한 뜻을 토론하다가 혹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또는 잘못 대답을 하게 되면 그의 무안함이 어떠하겠는가. 이 점 때문에 바로 내가 차라리 학문을 게을리 한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강관에게 무안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하였다(『홍재전서』 권 161, 「일득록 1」諸臣以予於經筵, 不甚發難, 或疑以倦於講學而然, 此則不知予意者也, 近來講官之熟習經術者尠少, 若質問疑義, 討論奧旨, 或不能敷對. 又或有妄發, 則其爲無聊, 當復如何? 此予所以寧受不勤學之名, 而不欲貽無聊於講官也). 이 기록은 鄭民始가 한 것인데 때는 을사년(1785)으로 정조가 점차 경연에 흥미를 잃고 '경사강의'로 관심을 전환할 때이다.

로운 질문을 던져 그들을 학습시키고자 했고, 그 과정을 통해 君師로서의 자기 지위를 확립하고 또 지속적으로 확인시키려 했다. 그의 『경사강의』는 그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특히 그의 맹자학의 일면을 잘 드러내는 『鄒書敬選』과 『鄒書春記』의 경우, 학문적 능력이 뛰어난 군주가 자신의 안목을 과신하게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의 학문적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조의 경연은 가장 진지한 학술의 장이었고, 경연 이후에 이어지는 次對 역시 어느 군주보다 알찬 것이었다. 그러나 학술적 수준의 차이가 이미 상당하고, 학술의 방향을 선도하려는 군주의 의지가 확고한 전제시대에 정조의 이러한 뛰어난 학문적 수준과 확고한 방향의식은 어느 점에서는 다양한 학문의 임태를 막고 단조로운 학문적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아니었을까?

경학에 대한 자신감으로 그것을 주역과 연관시켜 해석한 것은 자신감이지만 그 방향의 타당성은 좀 더 고찰이 요망되는 것이고, 신하들에게 질문을 통해 물음을 통해 가르치다가 만년에는 이제는 신하에게 질문을 하게 하여 답하는 과정은 학술적 권력을 장악하고, 이미 그 수준마저 스스로 결정하게 된 군주가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었을까? 정조의 학문적 궤적은 좀 더 다양한 학문적 입장과 내용을 청취하는 방향이 아니라 점점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고 자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정조를 이은 순조대의 학문적 하강은 어느 정도 정조에 의해 배태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점에서 정조의 학술정책과 경학은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정조, 경연, 경사강의, 정조의 맹자학, 추서경선

투고일(2018. 4. 30), 심사시작일(2018. 5. 16), 심사완료일(2018. 6. 5)

〈Abstract〉

Jeongjo's Mencius Studies

- In the perspectives of gyeongyeon (經筵) and gyeonghak (經學) -

Ham Young-da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Jeongjo's interpretation of Mencius studies in the aspects of gyeongyeon (經筵). Gyeongyeon is a place where the king and subjects get together and discuss occasions to celebrate while examining pending issues among national affairs. In brief, it is a crucial place for discussing studies as well as national affairs.

Let's examine the history of gyeongyeon here. In China, most of it was developed as a way of actualizing what the king had in mind. The subjects' influence was quite limited in either changing or diverting the king's intention. In Chosun, kings loving studies like Sejong, Seongjong, Jungjong, Yeongjo, or Jeongjo did listen to what their subjects said; however, it was nearly the matter of the king's willingness to decide on the subjects of gyeongyeon and operate them.

About Jeongjo, as you can clearly see it from 'Gyeongseogangui (經史講義)', one of his representative books, gyeongyeon was not a place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subjects but a place to teach and learn about the subjects. Jeongjo collected subjects who were very much different from one another academically and intended to teach them by throwing wide-ranging sharp questions. With this process, he meant to establish his status as gunje (君師) and also let the subjects know of it continuously.

He had quite a lot of interest in and inclination for Mencius studies. What captures part of it well is 『Chuseogyeongseon (鄒書敬選)』 which is a collection of some text from Mencius. It is the summary of main contents extracted from Mencius. What is noticeable in it is that he applied the perspective of 『Juyeok (周易)』 to analyze Mencius. This is what anyone can do as an academic attempt, but his attitude shown in

* Senior researcher, Daedong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process plainly reveals the problem that can be found in the king who is equipped with great academic capability and is too confident about his own discernment. In this sense, Jeongjo's academic policy and gyeonghak need to be looked into more precisely afterwards.

Key Words : Jeongjo, gyeongyeon, Gyeongseogangui, Jeongjo's Mencius studies,
『Chuseogyeongseon』